

삼성TV, 미국서 연간 매출 10억 달러 달성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지난해 (11월까지) TV 부문 매출 실적으로만 연간 10억 달러 매출액을 달성하였다.

미국시장에서 주력제품인 DLP 프로젝션 TV와 LCD TV 이외 평면TV, 프로젝션 TV, PDP TV 등 다양한 고급 TV제품의 판매 호조로 미국 시장에 삼성TV가 진출한 이래 최초로 TV 매출 1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미국시장에서 TV 판매 기준으로 연간 10억 달러를 넘는 회사에 포함됨으로써 미국 시장에서 최고의 TV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였으며, 지난해 삼성전자가 달성한 TV 매출 10억 달러 달성은 전년도 매출 6억 7천만 달러보다 약 50% 이상 성장한 것이다.

또한 미국의 베스트바이, 서킷 시티, 시어즈 등 3대 유력 유통업체와의 견고한 유통기반을 바탕으로 이미 판매가격 3천불 이상의 프로젝션 TV시장에서 현재 시장점유율(M/S) 44%를 차지하며 1위를 지키고 있다.

한편 미국의 유력한 조사평가기관 제이 디 파워 (J.D .Power &

Associates)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미국 TV 구매자 5,343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3,500달러 이상 고가 TV 시장에서 삼성 TV가 소비자 만족도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들은 화질, 가격, 사용 편리성, 외부 디자인, 음향 등 5가지 항목에 걸쳐 평가했으며 삼성 TV는 상대적으로 고가임에도 우수한 화질로 고급 TV 시장에서 소비자 만족도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시장에서 최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 뉴욕의 새로운 명소인 '타임워너센터'에 총면적 280평 규모의 최첨단 브랜드 체험관 '삼성 익스피어리언스 (Samsung Experience)'를 선보이며 삼성의 앞선 디지털 기술과 콘텐츠를 직접 체험해 보는 장(場)을 마련



하는 등 미국의 심장부 '뉴욕'에서 확고한 브랜드 이미지를 쌓아 가고 있다.

삼성전자 북미총괄 오동진(吳東振) 부사장은 "삼성 TV가 미국 시장에서 연간 매출액 10억불을 달성하고 3,500달러 이상 고가 TV시장에서 소비자 만족도 1위를 차지한 것은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는 브랜드로 자리잡았다."는 결과라며 "삼성전자는 북미시장에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TV제품을 계속 선보여 경쟁이 치열한 미국 TV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 휴대폰 미국 CDMA 시장 점유율 1위

LG전자는 미국의 유력 IT 시장 조사 기관인 IDC 발표 자료에 따라 2004년 3분기 미국 CDMA 휴대폰 시장에 27%에 달하는 450만대 이상을 공급하면서 점유율 1위에 올랐다.

이번 IDC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위 사업자는 23% 공급에 그침에 따라 미국 CDMA 휴대폰 시장에 안정적인 1위 자리를 굳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미국 CDMA 휴대폰 시장에 카메라폰 등 고가의 프리미엄 휴대폰을 성공적으로 출시하면서 2003년 2분기 이래로 점유율 1위를

거의 매 분기마다 점해왔고, 올 2004년 전체 CDMA 휴대폰 시장 점유율에서도 안정적인 1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4년 한해동안 미국의 유력 CDMA사업자인 버라이즌을 통해 VX7000과 VX6100모델을 출시했고, 스프린트를 통해 PM-325, VI5225를 출시, 사용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G4010과 G4050등 출시했고, 또한 싱귤러를 통해 내놓은 L1400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GSM 휴대폰 시장에서 시장 진입 18

개월 만에 시장 점유율 12%로 4위에 진입하는데 성공하였다.

LG전자 북미사업담당 조준호(趙俊鎬) 부사장은 "LG전자 휴대폰 사업이 매 분기마다 성공적인 실적을 내고 있다"고 전하고 "LG전자의 GSM 휴대폰 또한 매우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최근 싱귤러에 3G 휴대폰 우선 공급 선정에 따라 향후 차세대 휴대폰 사용자들에게도 LG전자의 휴대폰이 큰 인기를 모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LG전자, 체코 대통령궁에 입성

LG전자가 체코 프라하에서 'LG 자선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급부상하는 체코시장에서 본격적인 브랜드 마케팅에 돌입한다.

최근 LG전자는 체코 프라하의 대통령궁 스파니쉬홀에서 바츨라프 클라우스(Vaclav klaus) 체코 대통령 내외와 파벨 베클(Pavel Bem) 프라하 시장을 비롯한 500여 명의 체코 지도층 인사들이 자리한 가운데 'LG 자선 콘서트(LG Advent Benefit Concert)'를 여는 한편, 체코 청소년 자선기금 전달행사도 가졌다.

올해로 두번째를 맞는 이 행사에는 체코의 국민가수 루찌에 빌라(Lucie Bila)를 비롯, 프라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소년합창단 등이 출연해 환상적인 크리스마스 캐롤을 선사하며 프라하의 송년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또한 LG전자 체코법인 상대홍(尙

泰弘) 법인장은 리비아 클라우스(Livia Klasusova) 영부인이 설립한 청소년 장학재단에 100만 코루나(4,500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특히, 바츨라프 클라우스(Vaclav klaus) 체코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LG전자가 체코 진출 1년만에 국민브랜드로 자리잡은 데에는 활발한 경제활동은 물론, 이런 사회공헌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체코 국민을 대표해서 LG전자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03년에 체코에 판매법인을 설립,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전략적인 마케팅을 펼쳐, 진출 1



년 만에 프리미엄 제품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GSM 휴대폰 및 MP3플레이어도 체코의 신세대 스타를 이용한 마케팅 등으로 체코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LG전자는 대통령궁을 비롯 프라하 공항, 주요 호텔 등에 PDP TV, LCD TV를 비롯한 다양한 프리미엄 제품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단기간내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에 성공했다.

삼성휴대폰, 북미에서 노키아제치고 2위 등극

삼성휴대폰이 올해 북미 휴대폰 시장에서 처음으로 2위에 등극해 '모토롤라-노키아-삼성' 3강 체제에서 '모토롤라-삼성-노키아'의 새 3강체제를 구축해 한국 휴대폰의 수출 대들보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 데이터퀘스트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북미 시장에서 3분기에 690만대 이상을 판매하며 시장 점유율 20.5%를 차지해 모토롤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모토롤라를 앞서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달성함과 동시에, 북미에서도 세계 1위인 노키아를 제치고 2위에 올라 명실 공히 세계 2위 업체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한편, 또 다른 시장조사기관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북미 휴대폰 시장에서 2분기에 23.3%의 시장 점유율로 모토롤라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미국 휴대폰 시장에서 2분기에 CDMA 1위, GSM 2위를 차지하면서 전체적으로 24%의 시장 점유율로 사상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해 한국 휴대폰의 위상을 강화했다.

삼성전자는 북미(특히 미국)에서 CDMA와 GSM을 고루 갖춘 제품 포트폴리오와 앞선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토롤라, 노키아와 대등한 경쟁을 벌여 왔다.

최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북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

전자는 세계 최초의 월드폰(A790)과 미국 최초의 VOD폰(A700), 지능형 복합단말기(MITs) 등 기술선도적 제품을 지속 출시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또한, 듀얼폴더, 폴더회전형 카메라폰, 슬라이드, 인테나 등 휴대폰 디자인의 흐름을 주도하는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여 미국 소비자를 사로잡아 왔다.

한편, 삼성전자는 2097년 미국 휴대폰 시장에 처음 진출한 이래 7년만인 올해 8월에 누계판매 5천만대를 돌파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휴대폰 시장에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 가 올해 '40억불 매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니 그룹, 한국 디지털 IT사업 강화



소니 그룹은 그룹 내 핵심 산업인 AV, IT, 게임 사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글로벌 전략에 따라 소니 코리아(대표이사

이명우 www.sony.co.kr), 소니 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대표이사 윤여울, www.scek.co.kr) 등 AV, IT, 게임 관련 한국 현지법인에 대한 경영전략을 발표하였다.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을 위해 양사(소니 코리아, 소니 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의 조직을 현재와 같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마케팅과 영업 측면에서 소니 브랜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05년 1월 1일부로 소니 코리아 신임 사장에 現 소니 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 윤여울 사장을, 이명우 사장을 회장으로 임명하였다.

소니 그룹은 윤여울 사장을 소니 코리아의 신임 사장으로 임명하면서 SCEK 사장직과 겸임토록 하여, 양사의 경영전략 변화의 구체적인 전개 및 공동 마케팅 강화 등 한국 내 소니 그룹 핵심 사업분야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특히, 새로 임명된 소니 코리아 윤여울 사장은 소니 그룹 내 최고 히트 상품으로 평가 받는 PlayStation2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산업을 모두 아우르는 경영 마인드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향후 소니 그룹 내 핵심 사업인 AV, IT, 게임 사업간의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2001년 취임한 이명우 사장은 오랜 해외 영업의 국제적 감각을

바탕으로 소니 코리아를 매년 20% 이상 성장시키며 소니의 첨단제품을 한국 소비자에게 선보인 바 있으며, 금번 인사에서 회장으로 취임하여 소니 코리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국 내에 AV, IT, 게임 등 다양한 사업 영역을 구축하였지만 각 사업 부문 간에 시너지 효과 창출에 다소 부족함이 있어 브랜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Business Model을 구축하려는 계획이다. 향후 AV, IT, 게임 등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 예상된다.

현대이미지퀘스트, 이디아이큐 공장인수

디스플레이 전문 코스닥기업 현대 이미지퀘스트(대표 김홍기)가 30억 원을 투입 해 이디아이큐의 김천 공장 생산시설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회사측은 대지 4,900평에 건물 2,459평 규모의 김천 공장에서 LCD, PDP TV 와 프로젝터를 연간 100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로써 모니터를 생산하는 중국 텐진 공장과 유럽 수출 기반인 스페인 협력 공장을 운영하던 현대이미지퀘스트측은 디지털TV 국내 생산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현대이미지퀘스트 관계자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TV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장을 인수했다”며 “추가 투자를 통해 디지털 TV 및 프로젝터 생산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지난 2000년 5월 현대전자에서 분사한 현대이미지퀘스트는 지난해 매출액 4,234 억원을 기록하였다.

LG이노텍, 월 매출 1천억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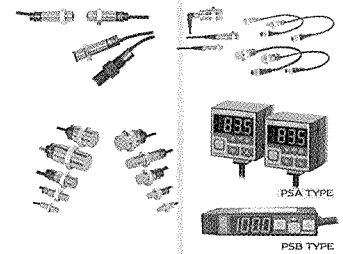
LG이노텍이 지난 11월, 회사 창립 이래 최초로 월 매출 1천억 달성의 위업을 이룩하였다.

월 매출 1천억 달성은 LG이노텍이 추진해온 ‘매출 1조 달성’이 가시화 되었음은 물론, 2005년 목표인 매출 1조 5천억 달성 전망을 밝게 해주는 성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번 성과는 또한 튜너, 모터 등의 주요 사업의 꾸준한 매출 신장 뿐 아니라, LCM, LED 등 신규/중점육성 사업들의 놀라운 선전에 힘입어 이루어진 것으로, LG이노텍의 전 사업부문이 올 한 해 고른 발전을 거듭해왔음을 시사하고 있다.

LG이노텍은 매출 1천억 달성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5년 매출 1조 5천억 달성을 통한 ‘1조원대 전자부품전문업체’로 양적, 질적 도약을 이루어, Global Top 전자부품업체로서의 대내외적 위상을 확고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토닉스, 수출 1,000만 달러 돌파



공장자동화용 센서 전문업체 오토닉스(대표 박환기 www.autonics.co.kr)는 국내 센서·제어기기 업체로는 처음으로 수출 1,000만 달러를 돌파하였다.

오토닉스는 지난 2000년 500만 달러의 수출을 일군 데 이어 올해 연간 1,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기록하였다.

“센서는 대부분 수입해 사용하고 있지만 오토닉스가 공장자동화용 센서를 국산화해 수입을 대체했다”면서 “국내 센서업체에서는 처음으로 수출 1,000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말하였다.

또, “매년 30여 종 이상의 신제품을 개발하고 셀(Cell)라인 생산방식을 도입하는 등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통해 외산제품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이 진출하기 힘든 공장자동화에 필요한 거의 모든 센서와 제어기기를 개발했으며, 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미국 등 4개국에 있는 현지법인과 전세계 영업망을 통해 수출을 확대해 왔으며, 내년부터는 중남미와 중동, 동남아 지역도 공략해 수출시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전기, 반도체 기판용 불량 예측 소프트웨어 개발

삼성전기가 차세대 기판 개발 기간을 25%이상 단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삼성전기는 차세대 나노급 반도체용 기판 개발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기판의 전기,기계적 불량을 예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TSP: Total Simulation Package)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메모리용 초박형 기판의 휨 현상을 15%정도 줄일 수 있었으며, 주파수가 0.1~4GHz인 대역에서 15% 정도의 잡음을 줄일 수 있도록 초고속 패키지기판 개발에도 적용하였다.

설계기간 및 재설계 횟수를 줄여 신제품 개발기간을 크게 앞당길 수 있게 되어, 향후 적용범위를 확대하면 연간 100억원 가량의 개발비를 절

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 소프트웨어는 메모리 및 초고속 패키징용 기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반도체용 기판들에 적용할 수 있어 제품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기 기판 사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로 더욱 얇고 빠른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반도체용 기판 개발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며 “지난 11월 ‘세계최초 초고속 반도체용 기판’ 개발에 적용한 결과 개발기간을 25% 정도 줄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우, 금년 매출 2조 6,200억 목표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사업에 주력해 삼성전자 및 LG전자와 직접 경쟁하겠다고 밝혔다. OLED는 액정표시장치(LCD)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에 이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다.

김충훈 대우일렉트로닉스 사장은 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LCD나 PDP 사업은 시기가 너무 늦어 참여하지 않고 대신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는 수동형(PM) OLED 사업에 본격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04년 실적은 매출액 2조 3,000억 원, 영업이익 600억 원이며 올해는 매출액 2조 6,200억 원, 영업이익 1,200억 원을 목표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졸업과 관련해 “원래 2006년으로 예정돼 있지만 지난해처럼 대규모 이익을 계속 낸다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삼보컴퓨터, 올해 수익경영 최우선

삼보컴퓨터가 올해 수익을 최우선으로 공격 경영에 나선다.

이홍순 삼보컴퓨터 회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수익성, 조직, 비용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체질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특히 모든 경영활동은 수익성을 근거로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하였다. 이를 위해 삼보는 투자 대비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미래 전략을 명쾌히 보여 줄 수 없는 사업, 단기간 내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수익성 높은 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새로 할 방침이다.

또 기존 매출의 주력이었던 ODM 부문에서도 삼보만이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다시 정의하고, 재무구조 개선에도 적극 나서 성장 경영의 기반을 갖춘 명실상부한 고부가가치 선진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천명하였다.

이 회장은 “자체 브랜드 에버라텍 노트북은 글로벌 SCM과 차별화 전략을 바탕으로 미국 소매시장에서 도시바·HP 등 세계적인 노트북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시장점유율 4위를 기록했다”며 “올해 월 10만대 이상의 노트북을 수출해 미국을 넘어 유럽·일본 등 세계를 무대로 뻗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국내시장에서는 고급형에 뒤지지 않는 사양을 갖추고 데스크톱보다 오히려 저렴한 90만원대 노트북과 데스크톱 루온 올 인원을 주력으로 1위 자리를 재탈환하겠다고 강조하였다.